

‘찾아가는 학부모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고양, 성남, 시흥, 화성 등 경기도 내 4개 권역서 진행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관장 류영신) 경기학부모지원센터가 자녀양육 과정에서 부모가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공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학부모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3일부터 고양을 시작으로 성남, 시흥, 화성 등 경기도 내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 상담사와의 소그룹 (5:1) 상담을

통해 학부모가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사전 심리검사(TCI-PAT), 주제별 집단상담, 사후 개별 심층상담으로 구성되어 부모의 자기 이해와 양육 실천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당초 모집정원은 160명이었으나 접수 시작 이후 신청자가 늘어 참가 규모를 200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류영신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은 “앞으로도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상담과 다양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학부모지원센터는 이번 집단상담 외에도 매월 개별 학부모 우선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 상담사례집’ 발간과 ‘학부모 상담역량 강화연수’ 등 상담 지원 사업을 강화해 오고 있다.

송민수 기자

수원특례시, ‘오늘무해! 페스티벌’ 개최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11월 2일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고색역 상부 공원 일원에서 제1회 탄소중립 한마당 축제 ‘오늘무해! 페스티벌’을 연다.

“지구로운 일상, 무해로운 삶”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수원시 최초로 운영되는 ‘탄소중립 실천주간(11월 2~14일)’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행사다. 공연과 체험, 캠프너(소품을 가دت가법게 즐기는 캠프)이 어우러진 시민참여형 축제로 열린다.

고색역 상부 공원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들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그린도시 사업의 의미와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오후 5시부터 열리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념식은 기념식수, 유공자 표창, 미디어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된다. 특

히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가요, 탄소중립’을 합창하며 기후행동의 의미를 전하고, 본공연에서는 SG워너비의 이석훈이 무대에 오른다.

축제장 곳곳에는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대학생과 지역예술인이 참여하는 버스킹 공연과 환경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회가 열리고, ‘찾아가는 카지니아 어린이 직업체험존’에서는 도시숲 가드너·친환경 이동수단 정비사 등 환경 관련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

탄소중립 홍보부스를 돌며 미션을 수행하면 에코백 등 친환경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스탬프 투어도 운영된다.

이 밖에도 그린 캠프너존, 라방랩 전시, 푸드트럭존이 함께 운영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축제로 꾸며진다.

송민수 기자

용인특례시, ‘수소 바로알기’ 현장 견학 실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2일 처인구 삼가동 통장협의회와 부녀회 회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충주 바이오그린수소충전소와 음식 수소안전뮤지엄을 방문하는 ‘수소 바로알기 시민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수소에너지의 생산부터 활용, 안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 전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매년 2회 ‘수소 바로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견학단은 충주 바이오그린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하루 12톤의 수소를 생산·공급하는 과정을 살펴봤다.

이 시설은 ‘에너지의 지역 순환’을 실현한 대표적인 친환경 모델로, 용인특

례시가 추진 중인 ‘미니 수소도시 조성 사업’의 벤치마킹 사례이기도 하다.

시는 앞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수소를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자립형 에너지 순환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후 견학단은 음식 수소안전뮤지엄을 방문해 수소의 특성과 안전관리 기술, 정부의 수소 안전 정책 등에 대한 전문가 설명을 듣고, 체험형 전시를 통해 수소의 안전성과 친환경 에너지로서의 가능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에 참여한 한 통장은 “수소에너지가 단순한 신기술이 아니라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 대안임을 느꼈다”며 “앞으로 마을 단위에 서도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적극 동참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민수 기자

김동연, “AI산업 인력 육성에 전력. 대한민국 견인하겠다”

23일 고양시 민생경제 현장투어에서 ‘경기 AI 청년 커넥트’ 행사

경기 AI캠퍼스+북부 개소. AI 융합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교류거점 역할

경기도 고양시에 인공지능(AI) 융합 생태계 구축의 거점역할을 할 ‘경기 AI캠퍼스+북부’가 문을 열었다.

23일 고양시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고양 창조혁신캠퍼스에서 열린 ‘경기 AI청년 커넥트(Connect)’ 행사에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작년 남부에 이어 오늘 북부 캠퍼스를 열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다”며 “경기도 AI캠퍼스는 세계적인 우수 AI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와 고양시, 글로벌 기업들, 국내 대학들이 함께 대한민국 AI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AI에 있어 가장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견인하고 있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AI를 가열차게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1년 전 이미 AI국을 만들었고, AI스타트업들과 함께 앞길을 개척해왔다”며 “AI산업 자체, 또 다른 산업과의 연계, 융합을 통한 대한민국 미래의 퀀텀 점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재 육성에 있어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민생경제 현장투어와 관련해 “고양은 경기북부 대



개조에 있어서 핵심 축이다. 단순히 고양뿐만 아니라 경기북부를 위한 4중 선물세트를 드렸다”며 “첫 번째는 일산대교 무료화, 두 번째는 고양시민의 숙원이었던 K-컬처밸리 우선협상자 선정, 세 번째는 킨텍스 제3전시장,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북부 AI 캠퍼스를 이곳 고양에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개최한 이날 행사는 ‘경기 AI캠퍼스+북부’ 개소식과 AI 청년 토크 램(Talk Lab)으로 구성돼, 경기도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도민과 함께 미래 비전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경기 AI캠퍼스+북부’는 빅테크 기업, 대학 등 AI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고양 창조혁신캠퍼스 16층에 조성된 AI 교류거점이다. 전용면적 533㎡에 강의장, 빅테크 체험존, 네트워킹 공간 등이 마련돼 있다.

이 곳에서는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클라우드, IBM, 네이버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해 세계 선도 수준의 AI교육 및 교류협력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들의 AI실무역량을 키워나갈 방침이다.

경기도는 ‘경기 AI캠퍼스+북부’를 지난해 10월부터 성남 판교에서 운영 중인 경기AI캠퍼스+남부와 함께 경기도와 글로벌 AI생태계를 연결하는 허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송민수 기자

GH 여자레슬링팀, 전국체전서 금·은·동 메달 고루 석권

전국체육대회 여자레슬링 경기도 대표 출전… ‘금 1, 은 1, 동 1’패거

임준한 정 선수는 경기 내내 적극적인 공격과 안정된 자세 운영으로 관중들의 찬사를 받았다.

62kg급에서는 성화영 선수가 결승에서 이신혜(서울중구정) 선수에게 아쉽게 패하며 은메달을 차지했다. 50kg급에서는 현 국가대표 김진희 선수가 김동희(대구시정) 선수와의 4강 경기에서 4:6으로 석패해 동메달을 차지했다. U-20 국가대표 조은소(57kg급) 선수는 1회전에서 현 국가대표 권영진 선수에게 패했으나, 젊은 패기와 적극적인 경기 운영으로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김용진 GH사장은 “매 대회마다 늘

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GH 여자레슬링 선수들의 땀과 수고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GH는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최고의 기량을 펼쳐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창단 이후 국내외 대회에서 금빛 물풍을 일으키며 ‘괴물 신생팀’으로 주목을 받은 GH 여자레슬링팀은 올해만 국내 주요 전국대회에서 3연속 단체전 우승을 거머쥐고, 2명의 국가대표를 동시에 배출하는 등 명실공히 국내 여자레슬링팀 최정상화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송민수 기자

성남시, 카카오게임즈와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 운영

지역 특수학교·지역아동센터 등 10개 기관 대상 4차원(4D) 가상현실(VR) 체험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카카오게임즈와 함께 지역 특수학교,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는 2019년부터 성남시와 카카오가 함께 추진해 온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게임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 아동과 청소년, 장애 학생들에게 새로운 즐길 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가상현실(VR) 게임버스가 직접 학교와 복지시설을 찾아가 아이들이 생생한 게임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올해에는 5월 지구촌어린이울림축제를 시작으로 6월 성남혜은학교, 9월 성남종합운동장 등에서 순차적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지난 10월 17일에는 하은지역아동센터 등 3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오는 10월 24일 성은학교를 마지막으로 올해 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25인승 버스 내부에는 롤러코스터, 자이로드롬, 대관람차, 회전목마, 관광열차 등 다양한 4D VR 어트랙션이 설치돼 있다. 체험 의자에 앉아 VR 고글과 헤드셋을 착용하면 실제 놀이기구를 타는 듯한 스릴과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이외에도 활채어 이용자를 배려한 ‘c’자형 볼풀 게임, 눈을 감고 촉감을 이용해 볼록을 맞추는 점자볼록 게임, 종이비행기 날리기, 라이언 포드 존 등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부

대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성남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게임을 긍정적으로 경험하고, 또래와 소통하며 건강한 여가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가 아이들이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며 게임을 건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고양시립합창단 ‘찾아가는

퇴근길 비타민 음악회’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의 대표 문화사절단인 고양시립합창단(지휘 김중환)이 오는 하반기 10월과 11월, 관내 주요 역사에서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를 개최한다.

‘찾아가는 퇴근길 비타민 음악회’는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퇴근길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오페라, 뮤지컬, 영화음악, 국내의 가곡, 가요 등 다채로운 음악 장르로 구성됐다.

이번 공연은 별도의 입장료 없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하다. ▲10월 28일(화) 19:00, 백석역 ▲10월 31일(금) 19:00, 행신역 ▲11월 14일(금) 18:00, GTX-A 킨텍스역 ▲11월 17일(월) 18:00, GTX-A 대곡역에서 개최된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가까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퇴근길 시민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활력을 불어넣는 이번 음악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포시, 2025년 제3차

정비사업 실태점검 실시

군포시는 관내 정비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5년 제3차 재개발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실태점검을 각각 10월 20일부터 24일,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 대상은 군포3구역 재개발 및 차치발라(금정동 711-15번지) 일원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조합 또는 신탁사로,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점검을 병행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점검·자문위원’과 구역별로 시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총 9명 내외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수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공사 선정·계약 ▲용역 계약 ▲회계 처리 ▲정보공개 등 정비사업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관련 법령 및 정관 등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될 경우 자문회의를 거쳐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포시는 지난 5월과 7월에 제1차, 제2차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현재 점검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당초 2025년에는 총 4차의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후속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제3차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으로, 올해 미점검된 구역은 내년도 실태점검 계획에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함으로써 원활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천군, '연천의 미래세대

위한 자연과 평화 국제포럼'

연천군은 23일 연천 백학자유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연천의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과 평화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연천군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주최하고 경기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이 함께한 이날 행사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사전행사 정년 특별세션과 본행사도 진행됐다.

오전에는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한 '청년 특별세션 : 청소년 모의 국제회의'가 열렸다. 청년 특별세션에는 입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이상호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연천군 공무학교 학생 15명과 한국 및 일본 생물권보전지역 청년 네트워크, 글로벌 청년 생물다양성 네트워크, 유엔기후변화협약 청소년야동맹체 멘토 12명이 참여했다. 태국과학기술연구소 사카에랏 생물권보전지역 환경연구소 카눙뎀 솜시리 연구보조담당관의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국제모의회의를 개최하고 '연천 자연과 평화 선언문'을 채택했다.

개회식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크 로우한 국전참전협회장의 특별연설과 함께 연천군과 국내의 청년들이 수립한 청년특별세션에서 채택된 선언문 전달식이 이뤄졌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문명적·생태적·평화적 가치에 숨 쉬는 연천군이 미래세대와 함께 자연과 평화를 지키고, 유네스코 다중지정지역 관리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